

### 새크라멘토 한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 내집 마련 '특별한 사연'

## 자원봉사 5백시간·정성들여 집관리 3년 결실맺은 수잔 김씨 미국온지 37년 온갖 역경 이긴 오뚜기 인생, 요리책 집필도

새크라멘토 인근 아번 지역에 거주하는 수잔 김(60)씨는 최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신자들의 방문을 받고는 하염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김씨의 주택마련 1주년 기념일을 잊지않고 찾아와 예배를 올려준 신도들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였다.

결코 특별한 일이랄수 없는 미국에서의 내집마련, 그러나 수잔 김씨에게는 교회신도들이 찾아와 기념예배를 올려 줄 정도로 특별하고 감격스런 일이었다.

### 아이들과 살 내집 꿈 교회 신도들 도움 커

별다른 수입도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던 김씨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94년 Habitat for Humanity란 종교단체를 만나면서였다.

해마다 25달러씩 인상되는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생을 하고 있던 김씨에게 한달 인컴 6백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무료로 집을 지어 준다는 동 단체의 이야기를 들은 것.

망설일 것도 없이 김씨는 동 단체를 찾았고 동 기관에서 제시한 여건에 합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김씨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단 집을 지어주기 앞서 5백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날부터 김씨는 집짓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수잔김씨가 애견을 안고 환한 미소를 지며 포즈를 취했다.

디어 방 두개, 거실, 부엌이 갖추어진 내집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3년은 한달에 2백50달러를 내면서 살아야 했다. 관계기관측에서 집을 잘 건사하고 사나 수시로 조사를 나오는데 만약 집관리를 잘못 하면 강제로 퇴거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무사히 3년을 살아냈고 드디어 작년 10월 1일 관계기관에서 집을 김씨

식품점을 차렸다.

강도에게 뒷머리를 맞아 머릿칼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는 일도 당했다. 그때의 상처로 아직도 기억력이 맑지않은 김씨. 그러나 그는 타고난 요리솜씨를 바탕으로 95년 'Low fat Korean Cooking'이란 영문 한국요리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일본요리나 중국요리보다 맛이나 영양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한국요리가 미국에서 제

원 회

식

변청광씨가 자

어려우니 우리 모 동포사회의 염원에 합심 노력하자

축위는 오는 11월 된 모금파티의 성를 위해 적극적인로 했으며 일인당 티켓은 각 건축위 구입할 수 있다.

일 현재 건축위가 는 금액은 총 17만 러이다.

### 들 노려

### 게 지참

라멘토 지역 아시 그룹 리더들의 모 앞에서는 동양계 여 날치기범들의 타 있다는 정보를 입수 면에 부심중에 있 일차적으로 각 아시 기관에 범행방지는 홍보물을 보냈